

## 테니스 활동 충성도와 제약 지각간의 관계

남사웅<sup>1)</sup> · 이창준<sup>2)</sup> · 양명환<sup>3)</sup>

- 목 차 -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1. 표집

2. 측정도구

3. 자료처리

III. 연구결과

1. 가설 1의 검증

2. 가설 2의 검증

3. 가설 3의 검증

IV. 논의

참고문헌

### Relationship Between Tennis Activity Loyalty and Perceived Constraints

Nam, Sa-Weoung · Lee, Chang-Jun · Yang, Myung-Whan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ennis activity loyalty and perceived constraints. Based on this purpose thre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H1) Tennis activity constraints will predict tennis participants' affective attachment level. H2) Tennis activity constraints will discriminate between high and low group classified by frequency of involvement in tennis. H3) Tennis activity loyalty patterns will demonstrate different effects on tennis constraints.

The subjects were 159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involved in tennis classes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Tennis activity constraints were assessed by Tennis Activity Constraints Scale(Yang, 1997). Subjects were asked to how important each constraint would be their decision to discontinue or irregular participating in tennis on a 5-point Likert scale (1=extremely unimportant, 5=extremely important). Loyalty was assessed by combining a measure of affective attachment with a measure of behavior. Affective attachment to tennis was assessed using a 10-item questionnaire developed by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체육학과 체육학과 교수

3)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시간강사

researchers. Behavior involvement was measured by their frequency of involvement. Respondents were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 (high loyalty, spurious loyalty, latent loyalty, low loyal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nnis participants' affective attachment level could be significantly predicted from time, significant others, and will constraints.

Second, Tennis activity constraints of significant others, will and time could be discriminated between high and low group classified by frequency of participation.

Third, High loyalty group perceiv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time, significant others, and will constraint scores than did latent loyalty and low loyalty group. High loyalty group perceiv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facility constraint score than did latent loyalty.

## 1. 서론

여가 제약(leisure constraints)분야는 경험적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판적인 논평이 출간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상당수의 연구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이한 측면의 여가 제약 요인들이 고찰되고 있으며, 제약 요인들은 상이한 모집단의 표집으로부터 레크리에이션 관련 활동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Jackson(1990)에 따르면, "최근의 여가 제약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초기의 연구들보다 개념적 이론적 정교화 수준이 향상되었다"(p. 129)고 하였으며, 여가 연구자들은 여가 제약 현상에 대한 이해가 진전을 계속하려 한다면, 연구는 이론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여가 제약(leisure constraints)이라는 용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정의되어 왔지만 모든 정의들이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즉, 제약은 여가의 참여와 즐거움을 억제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 의해서 가정되고 개인들이 지각하는 요인들로서 정의된다(Jackson, 1993). 다양한 제약 범주들이 관련 문헌에 존재하고 있다. Francken과 Van Raij(1981)는 제약을 외적 제약과 내적 제약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시간 부족, 돈, 지리적 거리, 및 시설 부족과 같은 제약들은 외적 제약으로 분류하였고, 개인적 재능, 능력, 지식 및 흥미는 내적 제약으로 분류하였다.

Boothby 등(1981)은 스포츠 활동 중단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들은 관심부족, 시설 부족, 부적합함과 신체적 능력 부족,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시간부족을 중단하는 제약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경험적 자료들의 축적되면서 제약 지각은 지속자의 참여 중단 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지하게 되었다. Jackson & Dunn(1988)는 엘버타인들의 특정 여가 활동들에 대한 중단율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중단율의 범위는 2.8%(캠핑)에서 28.5%(운동지향 활동)까지였음을 보여주었다. Jackson & Dunn은 운동지향 활동들이 가장 높은 중단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운동활동은 또한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가장 매력을 끄는 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몇몇 활동들(예, 라켓 스포츠, 캠핑)은 참여를 중단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새로운 참여자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Bachman과 Wright(1990)은 비-헌터들간의 제약 지각을 연구하였다. Jackson & Dunn(1988)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비-헌터들을 헌팅에 관심이 있는 이전 헌터, 헌팅에 거의 관심이 없는 이전 헌터, 헌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헌터, 헌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비헌터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제약 지각이 비헌터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관심이 있는 이전 헌터들은 나머지 세 집단의 헌터들보다 참여 비용과 접근의 문제를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지각하지 않았다.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Backman(1991)의 연구에서는 골프 참여의 제약요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격과 분포 구역, 수송, 판촉의 5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25개의 항목을 가지고 사냥 활동과 관계된 장애 요인을 분석한 Wright와 Goodale(1991)의 연구에서는 제약 요인을 여가 선호도, 금전적 비용, 접근/기회, 공유지, 가족/직무 구속, 신체적 노력의 6차원으로 분류하였다. Jackson (1993)의 연구에서는 여가 제약을 사회적 고립, 접근 가능성, 개인적 이유, 비용, 시간 구속, 시설의 6가지로 분류하였고,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위락적 여가 스포츠 참여 제약 요인을 분석한 Alexandris와 Carroll(1997)의 연구에서는 개인적/심리적 요인, 지식 부족, 시설/서비스, 접근 가능성/재정적 요인, 흥미 부족, 파트너 부재, 시간의 7차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Jackson(1993)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여가 제약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8편의 논문을 고찰한 결과, 제약요인들이 상이하긴 하지만 시간 구속, 비용, 시설과 기회, 기술과 능력, 운송과 접근 요인들이 여가 제약의 보편적인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대학생들의 테니스 여가 활동 제약을 분석한 양명환(1997)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시설부족과 주요타자로부터의 지지를 의미하는 준거인 부재 요인을 중요한 제약으로 평가하였으며, 대학생들이 평가하는 제약요인은 시간구속, 시설부족,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 및 기술부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가활동 참여 제약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왜 어떤 사람들은 선정된 여가활동에 계속 참여를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중단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Buchanan(1985)은 선택된 여가 활동에의 지속적 참여는 헌신의 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특정 여가활동에의 헌신 또는 충성도는 어떤 개인에게는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여를 중단하도록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마케팅 맥락에서 충성도(loyalty)의 개념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용-만족에 이르는 심리 및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헌신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Assael, 1984; Aaker, 1991). Buchanan(1985)은 선정된 여가활동에의 지속적 참여는 헌신의 개념과 연관이 있음을 이론화하였고, Crompton & Lamb(1986)는 개인들의 공약 또는 헌신의 수준이 개인들의 장래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특정 또는 몇몇 선택된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성향으로 정의되는 활동 충성도(activity loyalty)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인 관심을 받고는 있으나, 몇몇 연구자들은 충성도가 소비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Assael, 1984). 활동에 대한 충성도는 개인들이 다른 것은 배제하고 선택된 활동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Backman & Crompton, 1991). 그러므로 만약 충성도가 높은 참여자가 특정한 선택 활동의 참여를 중단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활동에서 낮은 충성도를 보여주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활동을 중단하기 쉬운 소비자들에 대한 확

인은 소비자의 보유력을 신장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전략적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는 레크리에이션 매니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Backman, 1991).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과 같이 여가 행동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또는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단순한 반복 사용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여가와 소비자 행동 영역 모두에서 연구자들은 충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동적 측정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릇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Backman & Crompton, 1991; Buchanan, 1985).

따라서 충성도는 특정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개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정의적, 행동적 개념이 모두 통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성도는 정의적, 행동적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이차원의 구성 개념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행동적 사용을 측정함과 아울러 활동에 대한 정의적 애착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Backman, 1991; Howard, Edginton, & Selin, 1988). 이 이차원적 정의를 가정하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특정 활동에 강한 애착과 행동적으로 충실한 개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가식적인 충성도는 높은 행동적 충성도가 보이기는 하나 활동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것을 가리킨다. 잠재적 충성도란 행동적 충성도는 낮으나 활동에 대한 정의적 애착은 높은 것을 가리키며, 낮은 충성도는 정의적 애착과 행동적 충성도 모두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Backman(1991)은 특정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의 지속적 참여 또는 중단에 대한 개인의 결정은 활동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Backman(1991)은 골퍼들을 대상으로 활동 충성도와 제약요인 지각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골퍼의 행동적 참여와 태도 측정치에 근거하여 충성도 유형을 높은 충성도 집단, 가식적 충성도 집단, 잠재적 충성도 집단, 낮은 충성도 집단으로 분류하고 골퍼들의 제약 지각이 충성도 유형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충성도와 잠재적 충성도 집단이 가식적 충성도와 낮은 충성도 집단들보다 수송 제약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촉 제약은 높거나 가식적 충성도 집단보다 잠재적 충성도와 낮은 충성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참여 중단이 정의적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때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가정에 의하면, 활동 충성도가 활동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약요인들을 증재할 수 있다는 점을 예언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참여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데 영향을 미친 제약 요인들이 동일하지 않는 것과 같이 충성도 유형에 따라서도 중단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제약요인들을 상이하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테니스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충성도와 그들의 참여 중단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제약요인 지각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 가설 1. 테니스 참여 제약요인들은 테니스에 대한 애착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설 2. 테니스 제약 요인들이 테니스 참여 빈도에 따른 두 집단, 즉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을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설 3. 테니스 참여자들의 충성도 유형에 따라서 제약 지각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표집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제주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180명이었다. 대상자들의 표집은 유목적적 표집으로서 1997년 1, 2학기 테니스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과 테니스 서클활동을 하는 학생들이었다. 수강자들은 연구자들로부터 수시로 강의 이외의 여가시간에 테니스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 받았다. 테니스 활동에의 애착과 제약요인 조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매 학기말에 이루어졌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고 결측치가 60%이상 되는 2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5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중 남학생 106명(66.7%), 여학생 53명(33.3%)이었다

### 2. 측정도구

대학생들의 테니스 활동 제약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명환(1997)이 개발한 테니스 활동 제약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용으로서 시간구속(5문항), 시설부족(3문항), 준거인 부재(3문항), 의지부족(3문항), 기술부족(2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타당도와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를 입증한 척도이다. 학생들에게 테니스 참여를 중단했거나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데 각 제약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지적하도록 하였다(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잘 모른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

활동 충성도는 특정 활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반복 참여행동으로 정의됨으로 행동적 태도적으로 나누어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애착 측정과 행동적 측정을 합하여 복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테니스 참여자들의 정의적 애착 측정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테니스 애착 측정지를 이용하였다. 이 측정지는 테니스 참여 의도, 테니스에 대한 매력, 테니스 활동의 가치, 몰두, 즐거움, 친밀감, 선호도 등 테니스 활동에 대한 공약과 애착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항목-전체 척도간의 상관계수가 .55~.73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 값이 .91로 나타났다. 10문항의 5점 척도의 점수들을 합하여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과 낮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높은 점수, 즉 중앙치 이상의 득점자들은 테니스에 대한 정의적 애착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중앙치 이하의 득점자는 정의적 애착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측정은 테니스 참여자들에게 지난 3개월 동안의 테니스 활동 참여 빈도를 지적하도록 하여 평가하였다. 참여 빈도는 7점 빈도 척도로서 측정하였다:(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4-5회, (3) 일주일에 2-3회, (4) 일주일에 1회, (5) 한 달에 2-3회, (6) 한 달에 1회, (7) 거의 하지 않음. 참여 빈도를 기준으로 테니스 참여자들을 참여 빈도 상, 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낮은 참여는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테니스를 치는 사람을 가리키며, 높은 참여는 최소한 일주일에 2-3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테니스 참여 빈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행동적 참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고(35.8%), 반면 낮은 참여 범주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행동적 참여가 낮은 것으로 정의하였다(64.2%).

응답자들은 테니스의 행동적 참여와 정의적 애착 점수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4 집단중 한 집단에 할당하였다: (1) 높은 충성도(강한 애착, 강한 행동), (2) 가식적 충성도(약한 애

착, 강한 행동), (3) 잠재적 충성도(강한 애착, 낮은 행동), (4) 낮은 충성도(약한 애착, 약한 행동)

###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하여 4단계로 분석되었다. 첫째, 표집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테니스 제약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테니스 참여 빈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가설 1의 검증

일차적으로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허용치(tolerance)의 역수인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점검한 결과, 5개의 변인의 VIF는 각각 1.68, 1.19, 1.16, 1.53, 1.61로서 10보다 현저하게 작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 테니스의 정서적 애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테니스에 대한 정서적 애착			t
	비표준화회귀계수(b)	표준화회귀계수(beta)	b의 표준오차	
기술부족	-.0135	-.0365	.0354	-.382
시간구속	-.0397	-.2093	.0153	-2.596*
의지부족	-.0554	-.1908	.0231	-2.397*
시설부족	.0232	.0720	.0294	.789
준거인 부재	-.0475	-.1948	.0228	-2.079*
상수항	4.8052			

MR = .41, R<sup>2</sup> = .17, Adjusted R<sup>2</sup> = .14, F(5, 153) = 6.134, p < .0001

\* p <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잔차의 독립성에 관한 검증은 Durbin-Watson의 값을 이용하였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72이므로 양측 및 단측 검증 모두에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상치(outlier)를 알아보기 위하여 Cook D통계량을 점검한 결과, case 27의 쿡값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유의도가 크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잔차의 정규분

포 가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은 테니스에 대한 정의적 애착에 미치는 시설부족,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 기술부족의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5개의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17%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F(5,153) = 6.13, p < .0001$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변수가 투입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독립변수는 시간구속,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보면, 시간구속(beta=-.21), 준거인 부재(beta=-.19, 의지부족(beta=-.19)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구속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시간구속을 덜 받는 사람일수록 테니스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준거인 부재 및 의지부족의 제약을 덜 받는 사람들일수록 정서적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은 시간구속,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 변인에서 지지되었다.

## 2. 가설 2의 검증

우선 공분산 매트릭스의 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Box's M(25.76)을 점검한 결과,  $F=1.67$ 로서 유의도가 .061로서 각 집단의 공분산 매트릭스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타당성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출된 표본을 무작위로 분석표본(analysis sample)과 검증표본(holdout sample)으로 분할하고, 분석표본만을 이용하여 판별식을 도출한 뒤 이러한 판별식을 이용하여 유보시켜 놓았던 검증 표본을 대상으로 도출된 판별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표본 분할법을 이용하였다.

표-2. 테니스 활동 제약에 따른 참여수준 판별분석 결과

투입순서	Wilks' Lambda	F	P	표준화판별계수	구조상관계수
준거인 부재	.902	10.884	.0013	.559	.765
의지부족	.854	8.441	.0004	.538	.714
시간구속	.843	6.072	.0008	.310	.587
집단중심치(Group Centroids)					
높은 집단		-.566			
낮은 집단		.322			
고유치					
정준상관계수		.401			
Wilks' Lambda		.843			
$\chi^2, D.F., P$		16.79, 3, .0008			

5개의 테니스 제약 요인들이 테니스 참여가 높고, 낮은 활동 집단을 어느정도 판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함수에 포함될 5개의 제약차원들을 Wilks'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정한 결과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 시간구속 3개의 제약요인들이 유의한 판별 변수로 투입되어 판별함수를 도출한 결과가 표-2이다. 표-2에는 독립변수의 선정기준, 판별함수의 유의성 검정 통계량, 독립변수의 개별적 기여도 검정 통계량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2에서 보

면, 고유치가 .19이고, 정준상관계수는 .40이며, Wilks 람다의 값이 .843으로서  $\chi^2$ -분포로 변환시킨 값이 16.79, 이의 P값이 .0008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출된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중심점을 보더라도 참여 빈도가 높고 낮은 집단의 중심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이는 판별함수가 종속변인의 집단을 잘 판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 계속해서 판별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개별적 기여도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회전된 표준화판별계수를 보면, 준거인 부재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회전된 구조상관계수에서도 준거인 부재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의지부족 및 시간구속 요인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테니스 참여 정도를 가장 높게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은 준거인 부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판별함수의 유의도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Chi-square)는 검증력이 약하기 때문에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 함수의 정확한 판별력을 알아내기 위하여 분류정확률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판별함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류 행렬표를 작성한 결과가 표-3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7명의 검증용 표본에 대한 분류 정확률은 68.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테니스 참여가 높은 집단 20명중 14명(70.00%), 낮은 집단 37명중 25명(67.60%)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의 판별력을 갖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례기회확률 기준과 t-검증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표-3. 판별값에 따른 집단 분류결과(검증용 표본)

실제집단	사례수	예측집단	
		높은집단(%)	낮은집단(%)
높은집단	20	14(70.0%)	6(30.0%)
낮은집단	37	12(32.4%)	25(67.6%)

\* 분류정확률(hit ratio) = 68.42%

비례기회확률기준(proportional chance criteria: Cprop)은 대각선 상에 있는 정확히 분류된 비율이 각 집단의 비율의 자승합보다 25%이상 커야 판별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 경우의 비례기회확률은 53.8%이며, 이보다 25% 높은 값은 .673이 되기에 표-3의 적중률 .6842는 적당한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검증 통계량을 이용하여 표본의 적중률과 비례기회확률 기준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점검하였다.

$$t = (Q-P) / \sqrt{P(1-P)/n}$$

$$= (.684 - .538) / \sqrt{.538(1 - .538)/57} = .146 / .067 = 2.21$$

이 경우 t-통계량은 자유도(n-1)가 56인 t-분포를 이루기에 그 p값을 계산해 보면, 0.05수준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중률 .6842는 비례기회확률기준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적중률보다는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 및 시간구속 3요인에서 지지되었다.



### 3. 가설 3의 검증

먼저 다변량 분석의 적용 타당성(Determinant = .0718, Bartlett test = 251.2,  $p < .000$ )과 다변량 분산분포의 두 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 분산공분산행렬의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다변인 분석을 위한 가정들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는 테니스 제약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충성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테니스 충성도 유형에 따라서 테니스 활동 제약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77$ , Approximate  $F(15, 417.25) = 2.82$ ,  $p < .000$ ). 다변량 효과가 유의했기 때문에 사후 검증 단계로 테니스 활동 제약 요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충성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시간구속, 시설부족, 준거인 부재 및 의지부족 요인의 평균은 충성도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부족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단변량 분산분석의 결과에 이어 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cheffé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간구속 요인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충성도 집단과 잠재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시설부족 요인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잠재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집단들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준거인 부재 제약은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충성도가 낮거나 잠재적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의지부족 제약은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충성도가 낮거나 잠재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였다.

표-4. 충성도 유형에 따른 테니스 제약 지각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충성도 집단				Univariate		표준판별 함수계수	판별구조상 관계수
	낮은 (n=65)	잠재적 (n=37)	가식적 (n=37)	높은 (n=20)	F	p		
시간구속	15.96 <sub>a</sub>	15.42 <sub>a</sub>	15.60 <sub>ab</sub>	13.19 <sub>b</sub>	5.90	.001	-.431	-.637
시설부족	9.81 <sub>ab</sub>	10.38 <sub>a</sub>	9.65 <sub>ab</sub>	8.97 <sub>b</sub>	3.10	.028	-.065	-.445
준거인부재	10.23 <sub>a</sub>	10.35 <sub>a</sub>	9.15 <sub>ab</sub>	8.05 <sub>b</sub>	7.10	.000	-.600	-.721
의지부족	8.43 <sub>a</sub>	8.84 <sub>a</sub>	8.15 <sub>ab</sub>	6.97 <sub>b</sub>	5.18	.002	-.554	-.616
기술부족	6.35	6.35	5.85	5.62	1.73	.163	.225	-.344

MANOVA Test: Wilks' Lambda = .766, Approx.  $F(15, 417.25) = 2.82$ ,  $p < .000$

ab의 알파벳은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로서 알파벳이 다르면 평균값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한편, 단변량 F-검정은 종속 변인사이의 상관 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판별분석의 결과를 함께 점검하였다. 테니스 활동 제약 요인들이 충성도 유형을 판별하는 데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준거인 부재 요인이 충성도 유형을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종속변인과 판별함수 변량과의 상관관계수인 판별 구조 상관관계수(정준부하량)를 살펴보면, 준거인 부재 요인의 정준 부하량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에 다시 한 번 준거인 부재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논 의

본 연구는 테니스 활동 충성도가 테니스 활동 제약에 대한 지각을 중재할 수 있다는 개념적 틀에 근거를 두었다. 이러한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테니스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충성도와 그들의 참여 중단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제약 요인 지각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었다.

테니스 참여 제약 요인들은 테니스에 대한 애착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시간구속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시간구속을 덜 받는 사람일수록 테니스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준거인 부재 및 의지부족의 제약을 덜 받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애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골퍼들을 대상으로 활동 충성도와 지각된 제약간의 관계를 분석한 Backman(1991)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구속, 동료나 지도자 부족을 의미하는 준거인 부재 및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하는 의지부족 요인 때문에 테니스 참여를 중단하거나 규칙적인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은 테니스에 대한 태도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테니스에 대한 태도가 낮기 때문에 제약 지각도 그만큼 크게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에 대한 정의적 애착은 시간구속, 준거인 부재, 및 의지부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참여자들의 태도의 변화가 선행된다면 테니스 참여에 대한 제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테니스 제약 요인들이 테니스 참여 빈도에 따른 두 집단, 즉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을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검증 결과, 준거인 부재 요인이 두 집단을 판별하는 데 가장 큰 판별력을 갖고 있었고, 의지부족 및 시간구속 요인도 두 집단을 의미있게 판별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테니스 참여 정도를 가장 높게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은 준거인 부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또한 Backman(1991)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는 테니스의 행동적 참여와 제약 요인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동료나 지도자 부족을 의미하는 준거인 부재의 제약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테니스 참여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대학교의 테니스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니스 활동 제약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를 실시한 양명환(1997)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정의적 애착에서와 같이 의지부족과 시간구속을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참여 빈도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테니스 수업 현장에서 초보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는 기술을 가르쳐 줄 지도자가 없다는 점과 어떻게 기술 연습을 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을 숙지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요인보다 지도자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테니스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수강 인원이 많은 관계로 준거인 부재 요인이 아마도 테니스 참여에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도자의 세심한 배려가 테니스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테니스 참여자들의 충성도 유형에 따라서 제약 지각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을 검증한 결과, 시간구속, 시설부족, 준거인 부재 및 의지부족 요인의 평균은 충성도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부족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Scheffé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간구속 요인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충성도 집단과 잠재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시설부족 요인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잠재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집단들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준거인 부재 제약은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충성도가 낮거나 잠재적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의지부족 제약은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충성도가 낮거나 잠재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정의적 애착과 행동적 참여수준이 높은 충성도 집단이 정의적 애착과 행동적 참여 수준 모두 낮은 집단보다 모든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정의적인 애착만이 높은 잠재적 집단도 시간구속, 준거인 부재, 의지부족 요인에서 충성도가 높은 집단보다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낮은 충성도 집단과 잠재적인 충성도 집단은 테니스에 대한 정의적 태도를 바꾼다면,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참여 중단은 태도, 지각 또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때 더욱 쉽게 일어난다는 점을 주장한 Brehm과 Cohen(1962)의 결과와 Backman(1991)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반면 가식적 충성도 집단은 높은 충성도 집단과 이러한 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테니스 참여 강도가 높은 학생들은 테니스에 대한 정의적 애착에 관계없이 시간구속, 준거인 부재, 시설부족 및 의지부족의 제약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식적 충성도 집단의 학생들이 친구들의 참여 때문이건 학점 평가자인 교수의 이목을 염두해 두고 참여했던 간에 행동적인 참여를 많이 한 것은 결국 테니스 활동 제약을 그만큼 덜 받았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초보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변화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식적 충성도 집단의 학생들은 외적인 요인(예, 친구의 참여)때문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요인이 사라졌을 때 중단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테니스 활동에 대한 정의적 애착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테니스 활동 충성도와 제약지각 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도출하긴 하였으나, 특정 대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과이고, 또한 테니스 활동 제약 요인들의 대표성의 문제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제안한다. 추후에는 Backman(1991)의 제안처럼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종단적 연구는 충성도의 발달과 제약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정보 축적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양명환(1997). 대학생들의 테니스 활동 제약에 대한 요인분석. *경남체육연구*, 제2권 제 2호, 33-47.
- Aaker, D.(1991).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New York, N.Y.: The Free Press.
- Alexandris, K., & Carroll, B.(1997). An analysis of leisure constraints based on different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levels: Results from a study in Greece. *Leisure Sciences*, 19, 1-15.
- Assael, H.(1984).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Boston, M.A.:Kent Publishing.
- Backman, S. J.(199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loyalty and

- perceived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32-334.
- Backman, S.J., & Crompton, J.L.(1991). Differentiating high, spurious, latent, and low loyalty participants in two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9, 1-12.
- Boothby, J., Tungatt, M. F., & Townsend, A. R.(1981).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1-14.
- Brehm, J. & Cohen, A.(1962). *Explorations in cognitive dissonance*.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Buchanan, T.(1985). Commitment and leisure behavior: A theoretical perspective. *Leisure Sciences*, 7, 401-420.
- Crompton, J., & Lamb, C.(1986). *Marketing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Francken, D., & van Raij, M.(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337-352.
- Howard, D., Edgton, C., & Selin, S.(1988). Determinants of program loyalty.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6, 41-51.
- Jackson, E. L.(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55-70.
- Jackson, E. L.(1991). Leisure constraints/constrained leisure: Special issue introdu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79-285.
- Jackson, E. L.(1993). Recognizing patterns of leisure constraints: Results from alternative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129-149.
- Jackson, E. L., & Dunn, E.(1988). Inte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31-45.
- Jackson, E. L., & Rucks, V. C.(1993). Reasons for ceasing 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Further examination of constrained leisure as an internally homogeneous concept. *Leisure Sciences*, 15, 217-230.
- Wright, B. A., & Goodale, T. L.(1991). Beyond non-participation: Validation of interest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categories in constraints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14-331.